

조선어문장구성론의 성립과 과제

교수 박사 박재호

1. 서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언어학부문에서는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합니다.》

문장구성의 원리와 규칙을 밝히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문장구성론은 우리의 언어학발전에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할 중요한 분야이다.

문장구성론에서는 문장을 짜는 리론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물론 지금까지 문장론에서도 문장을 짜는 리론과 방법에 대하여 도외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구성론을 따로 제기하게 되는것은 그것대로의 성립근거와 특성이 있기때문이다.

조선어문장구성론의 연구는 조선어문법론을 완비하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어문장구성론은 지금까지의 문법론연구에서 독자적인 리론분야로 정립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성》이란 《어떤 부분이나 요소들로 일정한 사물을 이루는것 또는 그 요소들의 짜임》(《조선말대사전》 1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5(2006).)을 말하는데 문장의 구성이라고 할 때도 이 두 측면을 포함시켜 리해할수 있다. 하나는 일정한 언어적요소들을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짜는가 하는 동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문장이 어떻게 짜여져있는가 하는 정적인 측면이다. 이 두 측면에 대한 리론을 서로 다르게 이름지어 전자를 《문장구성론》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문장분석론》이라고 부를수 있다.

문장론에서는 문장구성의 규칙을 밝히는 문장구성론과 문장의 구조적특성을 밝히는 문장분석론을 다같이 연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시기의 문장론에서는 문장의 구조적특성을 밝히는데는 많은 힘을 넣으면서도 문장구성의 원리와 규칙을 밝히는데는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문장구성의 원리와 규칙을 밝히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문장구성론을 연구하는것은 우리의 문법론을 더욱 완비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사회언어생활을 더욱 개선하는데서도 문장구성론의 연구가 중요하다.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하려면 언어생활의 주인인 모든 사회성원들의 문장구성능력과 문장분석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사람들의 언어생활은 문장의 구성능력과 분석능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이 높아도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약하면 언어생활이 인간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 그러므로 언어생활을 발전시키려면 문장분석능력을 주는 문장분석론과 함께 문장구성능력을 주는 문장구성론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선행문법에서의 문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어문장구성론연구의 필연성을 밝히고 문장구성론의 성립조건과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조선어문장구성론에 대한 일반적리해를 가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2. 본 론

2.1. 문장에 관한 선행연구의 제한성

조선어문장구성론의 연구는 문장에 관한 선행이론의 제한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현실적요구이다. 문장에 관한 이론은 문장론이라는 문법의 한 분과를 이룬다. 문장론에서는 문장안에서의 단어들의 연결방식과 그 호상관계, 문장의 구성성분, 문장의 구조, 문장의 유형들을 연구한다.

지난 시기 문장에 관한 이론의 주류를 이루어온 문법이론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전통문법, 구조주의문법, 변형생성문법으로 나누어본다.

* 문법을 전통문법, 구조주의문법, 변형생성문법으로 나누어보는것은 어디까지나 내용에 따르는 구분이지 결코 시기적구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통문법의 시기가 끝나고 구조주의문법의 시기가 시작되었다거나 구조주의문법의 시기가 끝나고 변형생성문법의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전통문법, 구조주의문법, 변형생성문법에서의 문장연구는 문장구성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 제한성은 우선 그 문법들이 사람들에게 사상을 표현하는 능력을 직접 주지 못한다는데 있다.

전통문법은 고대시기부터 연구되어온 문법이다.

고대문법에서는 문장론이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문장에 대한 연구는 품사론, 형태론과 뒤섞여 이루어졌다. 전통문법의 모체라고 할수 있는 고대인디아의 문법이나 고대그리스의 문법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있었다.

* 고대인디아에서는 B.C. 4세기경에 이르러 고대종교어였던 신티스크리트어를 어음에서부터 시작하여 문법에 이르기까지 정리, 기록해두어야 할 요구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요구로부터 나온 문법서가 《파니니의 문법》이다. 여기에서는 문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어휘, 말뼉리의 발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개별적어음보다는 문장속의 어음분석을 중요시하였다.《외국언어학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그리스어문법의 최초의 완성자는 트락스(Dionysius Thrax, B.C.100년경)이다. B.C.1세기 트락스는 그리스어문법을 집약한 크지 않은 문법서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문법의 기교》이다. 트락스는 이 저술에서 명사, 동사, 분사, 관사, 대명사, 전치사, 부사, 접속사 등 8품사를 설정하였는데 품사구분에서 전치사, 부사, 접속사는 문장론적특성에 따르는 정의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문장론적측면을 보다 철저하게 적용하여 그리스어문법을 더욱 완성한 사람은 아폴로니우스(Apollonius Dyscolus, 200년경)이다. 그리스어문법에서 명사와 동사는 품

사에서 특별히 중요시되어왔는데 아폴로니우스는 이 두 품사의 문법적조응과 련관을 새롭게 밝히고 이 두 품사에 대한 다른 품사들의 문장에서의 의존관계를 분석하는것으로써 문장전체의 통합적서술을 진행하였다.((외국어언어학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트락스와 아폴로니우스에 의하여 완성된 그리스어문법은 유럽의 여러 언어들에 통용되어 전통문법의 모체로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언어학의 역사는 오래지만 문장론에 대한 연구는 근대언어학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주시경을 비롯한 근대언어학발전에 기여한 언어학자들의 저서에서는 문장이 독자적인 분야로 연구되었다.

전통문법은 사람들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리해》할수 있는 능력을 주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지만 많은 경우 문장의 의미파악을 위한 분석에 치우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르게 리해할수 있는 능력은 직접 주지만 바르게 말할수 있는 능력은 직접 주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내게 되었던것이다.

그 제한성은 또한 사람들에게 사상표현의 능력을 직접 주지 못하는 전통문법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것이다.

* 구조주의문법은 20세기 전반기 언어학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스위스의 소쥘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와 미국의 블룸필드(Leonard Bloomfield, 1887-1949)가 그 대표적인물이라고 할수 있다.

구조주의문법에서의 문장연구는 《통사분석》에서 그 특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통사분석》은 문장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문장성분화하여 분석하는 작업이다. 구조주의문법에서는 문장을 몇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성체로 보는데 구성요소는 그 구성체를 이루는 직접관계의 성분으로 되기때문에 직접구성요소 또는 줄여서 직소라고 부른다. 가장 낮은 급의 구성요소를 종국구성소라고 한다. 통사분석에서 구성체는 처음부터 종국구성소로 분석되는것이 아니라 계층적관계에 따라 분석된다. 계층의 차례대로 종국구성소에 이르게 하는 문장분석방법을 직접구성소분석 줄여서 직소분석이라고 한다.

구조주의문법론자들은 구조주의문법이 전통문법에서 벗어나 언어학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하지만 문장구성론적인 견지에서 볼 때 전통문법이 가지고있는 제한성을 극복한것은 별로 없다.

구조주의문법 역시 문장을 구성하는 측면보다 문장을 분석하는 측면에만 몰두함으로써 문장구성능력을 직접 주지 못하는 전통문법의 제한성을 그대로(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내고있다.

그 제한성은 또한 문장구성원리를 밝히는데서 구체적인 언어환경을 배제한것이다.

* 변형생성문법은 구조주의문법의 제한성을 극복하려는데로부터 나왔다고 볼수 있다. 경험론에 립각한 구조주의문법에 도전하여 리성주의에 그 철학적배경을 두고 발생한 변형생성문법은 1957년 촘스끼(Noam Chomsky)가 《통사구조》(syntactic structures)라는 저술을 발표한것을 시작점으로 하고있다.

구조주의문법이 언어의 습득을 경험에 의한것으로 보는 반면에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선천적인 언어습득장치라는 인간이 가진 잠재능력에 의해 언어를 배운다는 언어습득관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언어습득관에 의하면 인간은 유한한 규칙으로 무한한 수의 문장을 생성할수 있는 언어능력을 가지고있는데 이 능력은 문법적인 문장과 비문법적인 문장을 구별하고 문법적인 문장만을 만들어낼뿐아니라 이전에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문장도 리해할수 있고 만들어낼수 있다는것이다.

변형생성문법론자들은 전통문법과 구조주의문법의 제한성을 지적하면서 변형생성문법의 우월성을 크게 주장하지만 변형문법은 그것이 언어적환경을 배제한 리론이라는 심중한 약점을 가지고있다.

변형생성문법에서는 《문법적인 문장》과 《용인가능한 문장》이 구별되는데 변형생성문법이 연구대상으로 하고있는 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이다.

사실 《용인가능한 문장》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정에서는 언어적환경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은 의리를 귀중히 여겨야 하오.》라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지만 만일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아래사람이거나 또는 말하는 사람이 어머니이고 듣는 사람이 아들이라면 《용인가능한 문장》으로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 변형문법에서는 문법성만 따져서 우의 문장이 문법적인 문장이라고만 파악하지 《용인가능한 문장》인가 아닌가는 관심밖에 두는것이다.

변형생성문법에서 《엄격한 하위범주화규칙》과 《선택제한규칙》을 《문맥과 상관있는 규칙》이라고 하지만 이때의 문맥은 동사가 문장속에 들어갈 때 동사구안에서 다른 단어들을 요구하는가 안하는가 또한 그 동사와 결합하는 명사가 생물을 나타내는가 무생물을 나타내는가, 생물이라면 활동체인가 비활동체인가 하는 등의 특성을 부여해줄뿐이다.

그러므로 변형생성문법에서는 《문맥과 상관있는 규칙》을 통하여 《잡지가 영수를 읽는다.》나 《남철이가 돌을 먹는다.》와 같은 오유문장이 생기는것은 극복할수 있지만 이른바 《문법적인 문장》이 구체적인 언어환경속에서 오유문장으로 되는 현상은 극복할수 없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문장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우 문장에 대한 분석에 치우쳐있고 언어환경을 배제하고있다는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문장에 대한 분석은 문장을 옳게 리해하고 문장에 관한 리론을 발전시키는데서 필수적인 공정으로 되지만 사람들에게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주지 못한다.

문장을 만드는(생성하는) 규칙을 취급하고있는 변형생성문법도 그것이 언어적환경과 동떨어져 문장을 고립적으로 본 결과에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주는 리론으로서는 역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조선어문장구성론을 정립하는것은 지난 시기 문장에 관한 연구의 이러한 제한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현실적요구인것이다.

문장에 관한 리론이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을 줄뿐아니라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도 줄수 있도록 리론과 방법이 탐구되어야 한다.

2.2. 문장구성론성립의 이론적근거와 전제

2.2.1. 문장구성론성립의 이론적근거

문장구성론의 성립은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문장을 다루는 능력이 두 측면으로 이루어져있다는데 근거를 두고있다.

문장론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문장을 다루는 능력을 주는데 있으며 따라서 문장론의 연구대상은 다른아닌 문장이다.

문장에 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진행할수 있다.

문장은 그자체가 여러 측면을 가지고있는 복잡한 언어행위적단위이기때문에 논리적측면과 심리적측면, 문법적측면 그리고 구조적측면과 통신적측면, 가변적측면과 불변적측면 등 각이한 측면에서 연구할수 있는것이다.

문장은 그것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담당자의 견지에서 보면 말하는 사람의 측면에서도 연구할수 있고 듣는 사람의 측면에서도 연구할수 있다.

사람들의 언어생활은 입말과 글말이라는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입말은 말하기와 듣기로, 글말은 쓰기와 읽기로 나누어볼수 있다.

언어생활과정을 이루는 말하기와 듣기, 쓰기와 읽기에서 말하기와 쓰기는 언어에 의한 일정한 사상의 표현이며 듣기와 읽기는 표현된 사상에 대한 이해로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언어생활은 표현과 이해의 연속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표현의 담당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이해의 담당자는 듣는 사람이다.

문장을 말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연구한다는것은 곧 표현의 측면에서 연구하는것으로 되며 듣는 사람의 측면에서 연구한다는것은 곧 이해의 측면에서 연구하는것으로 된다.

표현의 측면에서 모든 이해의 측면에서 모든 언어행위의 최소단위는 문장이다.

문장은 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표현의 결과물이며 듣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해의 대상으로 된다.

그러므로 문장을 말하는 사람의 견지에서 연구하면 표현을 위한 문장론이 건설될것이며 듣는 사람의 견지에서 연구하면 이해를 위한 문장론이 건설될것이다.

표현을 위한 문장론에서는 표현능력을 주며 이해를 위한 문장론에서는 이해능력을 주게 된다. 여기에서 표현능력은 곧 문장구성능력이며 이해능력은 문장분석능력이다.

이로부터 문장구성능력을 주는 《표현을 위한 문장론》을 《문장구성론》이라고 하고 문장분석능력을 주는 《이해를 위한 문장론》을 《문장분석론》이라고 할수 있다.

문장구성능력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상감정이나 객관적현실의 내용을 언어적수단으로 형식화하여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이며 문장분석능력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 의하여 표현된 문장을 언어적으로 분석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문장구성능력은 의미로부터 수단으로 방향지어지는 말하는 사람의 언어행위능력이라면 문장분석능력은 수단으로부터 의미로 방향지어지는 듣는 사람의 언어행위능력이다.

문장구성능력과 문장분석능력이 밀접히 연관되어있는것만큼 문장구성론과 문장분석론도 호상 밀접한 연관속에 있다. 문장구성론을 통하여 문장구성능력뿐만아니라 문장분석능력을, 문장분석론을 통하여 문장분석능력뿐만아니라 문장구성능력을 일정하게 줄수 있다.

그러나 문장구성론과 문장분석론은 문장론의 두 측면을 담당하는 분야로서 엄연히 구

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문장구성론은 문장의 구성원리와 이론, 방법을 통하여 문장의 구성능력, 표현능력을 주며 그 과정에 간접적으로 문장에 대한 분석능력도 가지게 한다면 문장분석론은 문장의 분석원리와 이론, 방법을 통하여 문장의 분석능력, 이해능력을 주며 그 과정에 간접적으로 문장의 구성능력도 가질수 있게 하는것이다.

이처럼 문장론의 건설에서 문장분석능력을 직접적으로 주는 문장분석론과 함께 문장구성능력을 직접적으로 주는 문장구성론의 정립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다.

2.2.2. 문장구성론성립의 이론적전제

조선어문장구성론은 지난 시기 조선어문장연구의 이론적성과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지난 시기의 문장론은 표현과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격이 뚜렷하지 않거나 적지 않은 경우 문장분석론에 치우쳐있는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문장구성론적관점에서 완전히 리탈한것은 아니며 따라서 문장구성론건설을 위한 귀중한 이론적전제를 마련하였다.

문장구성론성립의 이론적전제는 첫째로, 주시경의 조선어연구에서 찾아볼수 있다.

주시경의 문장연구는 《국어문법》(1910)의 《짬듬갈》에 전면적으로 반영되어있다.

* 주시경(周時經, 1876—1914)은 호를 한훤샘이라고 한다.

그는 일찌기 국어국문운동에 뜻을 두고 1892년부터 조선어연구에 들어섰고 1907년부터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그밖에 조선어교육사업에도 힘을 기울이었다.

주시경은 일찌기 문법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근대적인 조선어학설의 특징을 도출하는데서 중요한 문헌으로 되는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 《말의 소리》, 《국어와 국문의 필요》 등을 집필하였다.

1910년 4월에 출판된 《국어문법》은 국문의 소리(어음론), 국문의 기슭(철자법익힘), 씨난갈(품사분류론), 짬듬갈(문장론), 씨몸바꿈(단어조성론)의 5개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조선언어학사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6.)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는 우선 문장론의 정의를 문장구성론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게 해석하였다.

《국어문법》에서는 문장론을 《짬듬갈》이라고 불렀는데 주시경은 여기에서 《짬》이란 《짜는것》 또는 《꾸미는것》을 의미하고 《듬》이란 《말이 꾸며지는 법》을 의미하며 《갈》은 《배움》, 《연구》의 뜻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리함으로 짬듬갈은 다가 꾸미여지는 여러가지 법을 배우는것이라 이름이라.》라고 문장론을 정의하였다.(《주시경유고집》 파악원, 1957.)

* 인용한 부분에서 《다》는 문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국어문법》에서의 《짬듬갈》은 곧 문장구성론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는 또한 조선어의 기초문장과 그 변형에 대한 일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는 《주어+술어》로 구성된 문장과 《주어+직접보어+술어》로 구성된 문장을 조선어의 기초문장으로 인정하였다고 볼수 있다.

이런 견해는 이 책에서 《아기가 자라오.》라는 문장에 대하여 《이 말은 입, 남 두 됴름으로 다 된 다니라. 다 된다는 아무리 적어도 이 두 됴름은 있나리라.》라는 주석을 달고 《아기가 젖을 먹소.》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이 말은 입, 씹, 남, 세 됴름으로 다 된 다니라. 다된

다는 아무리 크어도 이 세 등에 더함이 없나니라.》라는 주석을 단데서 표현되고있다.((주시경유고집》과학원, 1957.)

* 인용한 부분에서 《등》은 문장성분을 의미하며 《임》, 《쏟》, 《남》은 각각 주어, 보어, 술어를 의미한다.

이것은 문장 《아기가 자라오.》는 주어와 술어 두 성분으로 완결되었는데 완결된 문장은 최소한 이 두개 성분을 가진다는 뜻이며 또한 문장 《아기가 젖을 먹소.》는 주어, 보어, 술어 세 성분으로 완결되었는데 완결된 문장은 최대한 이 세 성분을 가진다는것으로서 조선어기초문장구성에 대한 최초의 가치있는 견해라고 볼수 있다.

주시경의 《국어문법》에서는 《본드》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조선어의 가장 기초적인 문장으로부터 보다 복잡한 문장이 구성되는 규칙을 설명하였다.

* 《본드》는 《본보기의 드》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드》는 문장성분들 가운데서 최소한 술어를 가지고있는 문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드》란 곧 《본보기문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국어문법》의 문장론에서는 두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 《아기가 자라오.》와 세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 《아기가 젖을 먹소.》를 가장 기초적인 본보기문장으로 제시하고 그밖에 기초적인 문장이 이러저러하게 변형되어 이루어진 19개의 본보기문장을 더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보기문장가운데는 《저 소가 푸른 풀을 잘 먹소.》와 같이 주어, 보어, 술어가 각각 수식성분을 하나씩 가지는 문장을 비롯하여 《이 소는 누르고 저 말은 점다.》, 《이마가 붉은 두루미가 소리가 길게 울더라.》, 《그 사람이 맘이 착하오.》, 《한사람이 뉘시를 들고 내에 와서 고기를 잡으오.》, 《내가 빠르게 가는 말을 타고 큰 재를 넘어왔소.》, 《먹는다.》 등 각이한 류형의 문장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에 쓰인 문장들은 단순히 리론적인 문제들을 설명하는데 리용된 실패문장이 아니라 리론적인 문제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시된 모형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장이다. 결국 《국어문법》에서는 21개의 본보기문장을 통하여 조선어문장성분과 문장의 구조적류형을 모두 설명한것으로 된다.

《국어문법》에서는 본보기문장에 대한 설명에서 《숨은 뜻》, 《속뜻》이라는 개념을 적극 리용하였다.

주시경은 《짚듬갈》에서 《본드》(본보기문장)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말로 그 뜻을 밝게 풀어내지 못하면 그림으로 밝히고 그림으로 밝히지 못하면 말로 풀고 이 두가지로도 풀수 없는것은 그 일의 뜻을 맘으로 살피어 풀어야 한다.》고 하였다.((주시경유고집》과학원, 1957.)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저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오.》라는 문장은 《저 사람이 노래하면서 (저 사람이) 가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저 사람이)》는 속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문장의 그림풀이를 보면 규정어와 주어 《저 사람이》를 내리쓰고 그아래의 술어자리에 《노래하(다)》와 《가(다)》를 수평으로 나란히 써서 《면서》로 련결시킨 다음 그아래에 토 《오》를 붙이였다.(그림은 내려쓰기에 맞게 내리그렸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하여 《이 그림을 오른쪽으로 보면 <저 사람이 노래하오.>요, 왼쪽으로 보면 <저 사람이 가오.>니라.》라고 설명하였다.((주시경유고집》과학원, 1957.)

이러한 방법으로 주시경은 《소가 말이 풀을 먹소.》라는 문장도 두개의 이야기내용을 담고있는 문장으로 해석하였다.

이 문장의 그림풀이를 보면 《소》와 《말》을 주어의 자리에 수평으로 나란히 놓고 《와》로 연결시킨 다음 그아래로 《-이 풀을 먹소.》를 이어놓았다.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하여 《이 그림은 오른편으로 보면 〈소가 풀을 먹소.〉요, 왼편으로 보면 〈말이 풀을 먹소.〉이다.》라고 설명하였다.(《주시경유고집》 과학원, 1957.)

이것은 《소가 풀을 먹소.》라는 문장과 《말이 풀을 먹소.》라는 문장이 이어져서 《소가 말이 풀을 먹소.》라는 하나의 문장이 구성되었다는 설명으로 이해할수 있다.

즉 《소가 풀을 먹소.》

《말이 풀을 먹소.》

⇒ 《소가 풀을 먹소.》+《말이 풀을 먹소.》

⇒ 《소가 풀을 먹소, 말이 풀을 먹소.》

공통요소 《풀을 먹소》가운데서 앞의것을 생략하면

⇒ 《소가, 말이 풀을 먹소.》

공통요소인 주격토가운데서 앞의것을 생략하면

⇒ 《소와 말이 풀을 먹소.》

《국어문법》에서는 또한 《먹는다》가 일정한 환경에 따라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제시하면서 《임이듬(주어), 씹이듬(보어)》은 밖으로 나타나있지 않으나 《속뜻》으로 있다고 지적하였다.(《주시경유고집》 과학원, 1957.)

또한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라고 하나니라.》라는 문장을 그림풀이로 분석을 한 다음 뜻으로 똑똑히 말하면 《공기가 움직이면 사람이 그 움직이는 공기를 바람이라고 하나니라.》로 된다고 설명하였다.(《주시경유고집》 과학원, 1957.)

이러한 설명들은 겉으로는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있는 말도 의미적으로는 문장으로 보는 관점으로서 문장분석의 측면에서 보면 무한히 긴 문장도 내면구조적으로는 유한한 길이의 간단한 문장들로 나누어 분석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며 문장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무한히 긴 문장도 유한한 길이의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진다는 원리를 밝힐수 있는 시초를 열어준것으로 된다.

문장구성론성립의 이론적전제는 둘째로, 지난 시기의 문장론이 일정한 정도에서 문장구성론적성격을 가지고있다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주시경의 문장론에서는 전통문법의 제한성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장구성론적인 견해는 이후의 문법가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문장론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문장분석론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에서 문장구성론적성격을 가지고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지난 시기 문장론의 문장구성론적성격은 우선 《옮김법》(《문장옮김법》, 《전달법》이라고도 한다.)과 같은 분야를 자기의 서술체계에 포함시키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옮김법이란 자기가 이미 한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되살려서 상대방에게 옮기는 방법이다. 옮김법은 언제나 《진술자의 말+다른 사람의 말》의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고치지 않고 고스란히 전달하는 방법을 바로옮김법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자의 입장에서 고쳐서 전달하는 방법을 풀어옮김법이라고 한다. 옮김법은 문장표현을 생동

하고 간결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조선말대사전》 3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

이처럼 옮김법은 문장분석법이 아니라 문장구성법에 속한다.

지난 시기 문장론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문장구성법에 속하는 옮김법을 한개 장에서 구체적으로 취급하였다.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6.)에서는 문장옮김법을 한개 장에서 취급하고있다.

여기서는 문장옮김법에 대한 일반적개념을 주고 옮김법의 유형과 특성을 설명한 다음 우리 말 옮김법의 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현대국어문법론》(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4(2015).)에서도 전달법을 한개 장에서 취급하고있다. 여기서는 전달법을 직접전달법과 간접전달법으로 나누고 옮기는 말과 옮겨지는 말의 련결방법, 직접전달법을 간접전달법으로 고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지난 시기 문장론의 문장구성론적성격은 또한 규범문법과 실천문법분야에서는 조선어 문장구성법과 관련한 일련의 구체화된 설명을 하고있는데서 나타난다.

《조선문화어문법규범》(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4.)에서는 말소리의 쓰임, 명사의 쓰임, 이음토의 쓰임, 단순문과 확대문의 쓰임과 같은 문제들을 적지 않게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문장구성의 관점에서 말소리나 품사, 토를 설명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실례를 들면 이음토의 쓰임에서는 《… 이음토를 잘 쓰는것은 문장을 옳바르게 짜는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문장을 짜는데서 이음토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맞게 쓸데 대한 문제, 문장안에서 이음토가 많이 쓰일 때 그것들을 알맞게 쓸데 대한 문제 등 문장구성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설명하였다.

《조선어실천문법》(교육도서출판사, 1986.)에서는 문장론을 취급한 제3편에서 한개 장에 《문장의 구성》을 설정하고 《문장의 구성과정》, 《문장의 기본틀구성》, 《〈부〉의 구성》, 《문장구성의 바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조선어실용문법》(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에서는 《명사와 언어례절》, 《말차림토의 쓰임》, 《단순성분과 확대성분의 쓰임》 등에서 문장구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설명하였다.

이 모든것은 문장론연구가 문장분석일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장구성의 원리를 밝히는데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과들은 문장구성론성립의 중요한 리론적전제로 된다.

2.3. 문장구성론의 성격과 과제

2.3.1. 문장구성론의 성격

지난 시기의 문장에 관한 연구의 제한성, 문장구성론성립의 리론적근거와 전제에 대한 리해에 토대하여 문장구성론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지을수 있을것이다.

첫째로, 문장구성론은 《표현능력을 주는 문장론》이다.

문장분석론이 리해능력,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는 문장론이라면 문장구성론은 표현능력, 문장을 짜는 능력을 주는 문장론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표현능력》은 언어생활의 두 측면을 이루는 《표현》과 《리해》의 테두리안에서 《리해능력》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문장구성론이 문장을 짜는 능력을 준다고 하여 이것을 단순히 《실천문법》과 똑같은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문법을 언어실천에 접근시켜 리론문법, 규범문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법분야를 개척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연구되는 실천문법과는 달리 문장구성론은 《문장을 해석하는 리론》에 짝을 맞추어 《문장을 짜는 리론》을 체계화하려는 관점에서 연구된다.

둘째로, 문장구성론은 《넓은 의미의 문장론》이다.

문장구성론을 《넓은 의미의 문장론》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언어적환경을 폭넓게 다루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문장론에서는 많은 경우 언어행위의 기본단위인 문장을 다루는데서 모든 문장론적비밀은 한 문장의 구조속에 감추어져있다는 관점으로부터 문장론연구의 범위를 대체로 한 문장을 벗어나지 않는것으로 간주하여왔다.

그러나 문장에 관한 리론중에서 20세기 중엽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변형생성리론은 1970년대에 이르러 심각한 도전에 부딪치면서 새로운 활로를 탐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에 개척된 분야의 하나가 어용론이다. 어용론의 출현으로 언어학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적환경이 폭넓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장론이 언어적환경까지 고려한것으로 성격이 변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어용론》은 문장론과 다른 독자적인 리론분야를 이루며 따라서 언어환경은 어용론의 연구대상일뿐 문장론의 연구대상으로는 되지 않았다.

그런것만큼 문장론이 지난 시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사명에 맞게 언어적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넓은 의미의 문장론》으로서의 문장구성론의 성격은 바로 문장구성론이 언어적환경을 폭넓게 다루는 문장론이라는데 있다.

2.3.2. 문장구성론의 과제

《표현능력을 주는 문장론》, 《넓은 의미의 문장론》으로서의 문장구성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주요과제로 삼게 된다.

첫째로, 문장구성론에서는 기초문장과 그 변형규칙을 연구한다.

한 언어안에 존재하는 문장은 무한히 많고 다양하지만 그 바탕에는 제한된 수의 기초적인 문장이 놓이게 된다. 문장의 구성과정은 제한된 수의 기초적인 문장을 만들고 그것을 일정하게 변형시켜 무수한 문장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제한된 수의 기초적인 문장은 진술의 내용과 언어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에 맞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형됨으로써 다양한 언어교제의 단위로 된다. 결국 제한된 수의 문장구성법을 알고 그 변형규칙을 알면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기초문장의 류형을 확정하고 그 변종의 여러 규칙을 해명하는것은 문장구성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하여 우리 말의 우수성을 더욱 살리고 문장구성능력을 높이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이다.

기초문장과 그 변형규칙에 대한 연구는 문장구성론연구의 기본몹을 담당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리론적으로 절실히 필요할뿐아니라 언어교육실천과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이 언어학앞에 제기하는 일련의 문제들에 긍정적대답을 줄수 있게 한다.

둘째로, 문장구성론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르는 문장의 구성원리와 방법을 연

구한다.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의 립장과 관점은 말과 글의 전반적성격을 규정할뿐 아니라 하나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구체적인 공정에도 작용한다.

문장구성에서는 언어적단위들의 론리—문법적관계만이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문장구성에 작용하는 말하는 사람의 이러한 주관적의도를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부를수 있다.

말하는 사람은 문장구성의 주체이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지난 시기 많은 경우 평가적태도를 위주로 하여 양태성범주에서 논의되어왔다. 물론 양태성의 의미로 나타나는 평가적태도도 문장구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평가적태도에서만 나타나는것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문장에서 어떤 단위를 주어 또는 주체로 내세우겠는가, 어느 단위에 새로운 정보를 포함시키겠는가, 어느 단위를 강조하겠는가, 문장의 표현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떤 수법을 적용하겠는가 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작용하게 된다. 말하는 사람의 이러한 태도에 따라 단어들사이의 단순한 맞물림관계에 기초하여 구성된 문장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그만큼 언어행위는 더 짜이고 원만하게 되는것이다.

셋째로, 문장구성론에서는 언어적환경에 따르는 문장의 구성원리와 방법을 연구한다.

문장은 언어환경과 떼수없이 련관되어있다. 언어환경을 떠난 문장이란 있을수 없으며 문장을 떠난 언어환경도 있을수 없다.

언어환경은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데서도 중요하지만 문장을 구성하는데서도 중요하다.

문장구성에서 언어환경은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구조를 짜며 다양한 수단과 수법으로 문법적의미들을 표현하는 문장구성의 전반적공정에서 작용한다.

가장 기초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언어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정한 진술내용을 담은 단어결합체가 문장으로 되자면 그 단어결합체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객관적현실, 말하는 시간과 련관되어야 한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객관적현실, 말하는 시간은 단어결합체가 문장의 자격을 가질수 있게 하는 최소의 언어환경이라고 할수 있다. 이 최소의 언어환경속에서 양태성, 시간, 존경, 말차림, 말법과 같은 문장에 필수적인 문법적범주들이 표현되며 단어결합체는 비로소 언어행위의 단위인 문장으로 전환되는것이다.

언어환경은 생략문이나 중단문, 외구성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류형의 문장을 만들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처럼 문장구성은 언어환경과 떼수없이 련관되어있다.

언어적환경을 떠난 문장이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것만큼 지난 시기에도 언어적환경에 대하여 문법책들에서 적지 않게 논의되어왔다.

진술성에 대한 설명에서도 언어적환경이 지적되었고 입말체문장에 대한 서술에서도 장면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언어적환경은 문장을 어떻게 리해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많이 다루어왔다고 볼수 있다.

문장구성론에서는 언어적환경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는 달리 언어적환경의 여러 요소들속에서 문장의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원리들을 탐구하게 된다.

넷째로, 문장구성론에서는 동의문의 구성원리와 방법을 연구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감정을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는 우리 말 표현의 우수성은 조선어에 동의요소들이 풍부하게 발달되어있는것과도 주요하게 관련된다.

동의요소는 어휘의 질서에서도 문법적수단의 질서에서도 그리고 문장의 질서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러므로 동의적현상에 대한 연구는 어휘나 표현, 토의 질서에서도 진행할수 있고 문장의 질서에서도 진행할수 있다.

문장의 질서에서 취급되는 동의요소를 동의문이라고 한다.

문장에서 동의관계에 대한 설명은 여러 문법책들에서 찾아볼수 있으나 《동의문》이라는 개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동의문구성과 관련하여 동의어나 동의토가 중요하게 논의되는데 이로부터 어휘론과 형태론이 문장구성론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동의문의 구성원리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옹계 활용할수 있는 방법론을 주는것은 문장구성론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된다.

다섯째로, 문장구성론에서는 언어사용과정에 나타나는 오류문장에 대하여 연구한다.

발음이나 어휘사용, 문법적수단의 사용에서 틀린것이 나타난 문장을 틀린 문장 또는 오류문장이라고 한다.

문장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오류문장들은 연구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장분석의 목적이 문장에서 잘못된것을 찾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만들어진 문장을 놓고 그 뜻을 파악하는데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문장을 구성하는 관점에서는 문장구성과정에 나타나는 오류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문장구성에서의 오류는 조선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조선어를 모국어로 하는 소학교, 초고급중학교 학생들은 물론 어른들의 언어사용에서도 나타나며 심지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출판물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장구성론에서는 이러한 오류문장의 류형과 오류문장이 생기는 원인, 극복방도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3. 결론

조선어문장구성론의 연구는 조선어문법론을 완비하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시기 문장에 관한 리론의 주류를 이루어온 전통문법, 구조주의문법, 변형생성문법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문장구성능력을 주는데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문장구성능력을 직접 주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문장구성론의 정립은 문법리론발전의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문장구성론정립은 사람들의 언어능력이 표현능력과 리해능력으로 이루어져있다는데 리론적근거가 있다. 문장론의 건설에서 리해능력을 직접적으로 주는 문장분석론과 함께 표현능력을 직접적으로 주는 문장구성론의 정립은 리론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

조선어문장구성론은 지난 시기 조선어문장연구의 리론적성과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지난 시기의 문장론은 적지 않은 경우 문장분석론에 치우쳐있는 제한성을 가지고있지

만 문장구성론적관점에서 완전히 리탈한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문장구성론건설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문장구성론은 《표현능력을 주는 문장론》이며 《넓은 의미의 문장론》이다.

《표현능력을 주는 문장론》, 《넓은 의미의 문장론》으로서의 조선어문장구성론에서는 조선어의 기초문장과 그 변형규칙,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르는 문장의 구성원리와 방법, 언어적환경에 따르는 문장의 구성원리, 동의문의 구성원리와 방법, 문장구성에서 오유문장이 나타나는 원인과 극복방도 등을 연구한다.

우리는 문장구성론에서 제기되는 모든 언어학적문제들을 깊이있게 연구함으로써 우리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문장론, 문장구성론, 동의문, 언어환경